

## NCKK 이 달의 시선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살처분’ 경기북부선 흔들리는 가운데 11만 마리 ‘선제적 예방’ 사실상 ‘생매장’으로 시행되는 살처분에 대한 성찰

NCKK 언론위원회 이 달의 시선은 9월의 이슈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살처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온 나라가 ‘조국 대전’(또는 ‘윤석열 검란’)으로 도가니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 굳이 눈을 돌려 강화도, 김포, 파주, 연천 일대를 향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살처분’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 비주류 언론 가리지 않고 ‘단독’과 ‘가짜뉴스’로 착종되어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일련의 상황(검찰 수사 및 언론 보도)은 계속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집중 점검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이 살처분이 가축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정석 혹은 만병통치처럼 알려져 있다. 살처분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한 다큐멘터리 <살처분, 신화의 종말>(충북 MBC 김영수 PD 연출)에 따르면 이 방식의 기원은 400년 전 중세시대 우역(牛疫), 즉 소의 페스트가 시발점이다. 16세기에 들어 소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면서 대량의 소들이 죽어가자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교황의 주치의였던 란치시라는 의학자가 명령을 받고 로마 일대에서 궁여지책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살처분이라고 한다. 이것이 확실한 과학적 검증 없이 오늘까지 신화처럼 군림해왔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이 만든 질병 구제역>의 저자 아비게일 우즈 교수가 출연해 2001년 영국에서 구제역에 대한 대량 살처분 요구에는 아무런 생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 농장에서 첫 신고 이래 가공할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다. 초기 10일이 흐른 시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살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긴 했는데, 10월 초에 들어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각각 한 건이 추가로 발생해 총 13건이 확진됐다. 10월 3일 현재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이 각 5건, 경기 김포시가 2건, 경기 연천군이 1건이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등 국면이 심상치 않다.

그러자 방역 당국은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일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km 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 농가의 돼지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지난 9월 28일

강화도에서의 돼지 살처분 결정을 내린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초유의 사태다. 이미 11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애초 바람을 타고 수km를 지나서도 감염이 이뤄지는 구제역과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직접 접촉 혹은 근거리 비말(飛沫) 감염을 통해서만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훨씬 느릴 것으로 기대됐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과거 구제역에 비해 2~3배 이상 빠른 전파속도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태풍 링링, 그리고 이즈음에는 태풍 미탁이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다.

아무래도 생소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 동아사이언스의 '강석기의 과학카페'를 인용, 재구성한다. 여기에 따르면 아프리



박영석,김영은 기자 / 20190927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카 돼지열병의 시발은 명나라 시절 정확의 원정대부터다. 정확 선단에 살아있는 식자

재로 실린 돼지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서 해당 지역 멧돼지들의 풍토병으로 있던 ASF바이러스와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걸 600년 전인 15세기 초의 일이다.

한편 유럽 열강의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면서 16-17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동아프리카에 돼지를 들여왔다. 아프리카가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되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전역에 이 돼지가 분포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ASF바이러스가 현지화된 아프리카돼지(또는 멧돼지)와 첫 만남을 가졌고, 폭발적인 증식속도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굳이 따지자면 중국과 포르투갈이 ASF의 창궐에 기여한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잠복해 있던 SAF는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발병하면서 세계화되었다. 이것이 흘러흘러 2018년 8월 ASF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돼지고기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4억4000만 마리에 이른다. 지난 5월 보도에 따르면 ASF로 인해 중국에서 10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됐다고 한다. 또 전년대비 사육두수가 4000만 마리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다. 중국의 ASF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이상 '강석기의 과학카페').

중국은 한국과 너무 가깝다. 육지로는 북한을 통해 연결이 되고 바다로는 서해 페리선이 무시로 오간다. 목하 100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강화-김포-파주-연천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북부의 저지선이 ASF의 남하와 확산을 저지하는 마지노선이다. 9월 29일 한때 충남 홍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보고되어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 돼지 축산업의 20%를 차지하는 충남지역에서의 감염은 경기도 북부 저지선의 와해를 뜻한다. 그렇다면 이제 ASF의 전국 확산은 시간문제다. 다행히 홍성의 사례는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도 북부의 이 저지선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일반적인 돼지열병 감염 경로는 바이러스가 든 잔반 투여, 감염된 야생 멧돼지나 진드기, 농장 관계자의 발병국 방문 등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올해 5월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대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잇따른 점을 고려해 멧돼지나 감염 돼지의 분뇨를 통한 전염도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북한 루트설'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일 연천 DMZ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감염경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야생으로 확산되는 순간 더 이상 방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민주당 김현권 의원).

최근 유포아이뉴스는 단독 보도로 북한 축산공무원 출신 수의사인 조충희(56) 굿파

머스 연구소 연구위원을 인터뷰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 국내에서 확산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강·하천을 통해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ASF는 지난 5월 국제기구 공식발표 두 달여 전부터 평양, 사리원과 보통강 일대를 중심으로 초기 발생해 현재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확진 지역이 대부분 북한과 강·하천으로 연결돼 있을 뿐더러 최근 발생한 태풍을 통해 강물이 범람하면서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DMZ의 철책선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248km 전 구간에서 멧돼지의 출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하천 등을 통한 유입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북한의 방역 인프라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최초 ASF의 유입 이후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궤멸적 피해가 진행됐을 것이다. 최근 냉각된 남북관계는 북한지역에서의 예방 활동이나 공동방역 등을 추진하기에도 마땅하지 않다. 빈발한 가을태풍도 전파의 한 원인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ASF는 거의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한국의 좁은 국토 면적, 공장형 축산 농가, 발달한 교통과 물류, 왕성한 경제와 문화 활동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에 애로 요인이다.

“이제 삼겹살도 못 먹게 된다는 말이나...”는 볼멘소리가 인터넷 댓글에 올라 있다. 돼지 축산 농가의 붕괴를 막고, 국민들의 먹거리에서 돈육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봉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철저한 방역의 수단으로, 들을 때마다 끔찍하고 불편한 ‘살처분’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ASF의 감염지역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당국은 선제적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살처분을 동원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금의 살처분 방식은 과잉적 예방이며, 살처분 자체가 충분히 검증된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 AI, 그리고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돌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살처분. 말이 선제적 예방이지 사실상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들을 오염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의 개연성만으로 학살하는 것이다. 결국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기 때문에 이 방식의 정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보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가축은 즉각 살처분하고, 반경 500m에서 3km까지는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안락사 후 매몰’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돼지가 산 채로 땅속에 묻히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불법 생매장 살처분’이다.

살처분은 한마디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살처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발생농가 3km 내의 돼지는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한다’

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도 판단기준'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범위까지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돼지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문제라는 것이 서대표의 입장이다(머니 투데이, 10.4 기사 재구성).

때마침 동물권단체 카라는 '세계 농장동물의 날'인 지난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매장 살처분 중단과 인도적 기준 준수로 농장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방역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은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얼마나 많은 돼지가 산 채로 땅속에 묻혀 극한의 고통을 겪다 죽는지 제대로 확인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생매장 살처분이 보도된 뒤 정부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생매장 살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10.2 기사).

덧붙여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언론사 취재의 부작용은 서초동에서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장에서는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취재 카메라들이 몰려다니는 상황은 방역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농장 인근으로 접근하여 드론을 띄우고 밀착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염려스럽다. 언론취재지침, 카메라 등 장비의 소독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 축산인은 '지금 돼지 축산 농장들은 감염이 되느냐, 방역이 되느냐로 예민한 상황'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육식하는 인간, 공장형 축산, 지구의 급속한 환경변화 등이 복합중층적으로 상승작용하는 가운데 전대미문의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고, 구조적이며 끔찍한 동물 학대를 없애는 길은 비건 채식(고기·생선·우유·달걀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이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채식주의자의 주장을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한 문명비판적 성찰을 해야 할 때다. 현실적으로는 방역에 실패한 당국이 심리적 패닉에 빠져 선제적 예방이라는 살처분으로 질주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방역 시스템의 변혁이 필요하다.

한편 시선 선정위원회는 이 달의 시선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가축 살처분'에 관한 아젠다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각종 이슈들 즉 검언 권력의 탄생과 유착, 조국 대전(또는 윤석열 검란)과 가짜뉴스, 아사한 탈북자 모녀와 버려진 2등 국민, 남북교류협력 교착상태, 문재인 정부의 DMZ 평화지대 선언, <반일 종족주의> 논란, 야당의원들의 삭발과 저항권의 오염, 교수 및 지식인 선언과 불통사회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음을 알린다.(끝)

#### 참고기사

[강석기의 과학카페] 아프리카돼지열병 어떻게 한국까지 들어왔을까, 동아사이언스, 9.24

전문가가 보는 돼지열병 사태...확산 원인과 남하 가능성은, 연합뉴스, 9.27

강화군 사육돼지 3만8000여마리 '전량 살처분', 인천투데이, 9.27

北 출신 수의사 "돼지열병, 北서 유입...평양서 3월 발생", 유피아이뉴스, 9.27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보다 두 배 이상 빨리 퍼져...다음주 최대 고비, 9.28 노컷 뉴스

충남 홍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판정, YTN, 9.29

오늘 '세계 농장동물의 날'...동물권단체 "생매장 살처분 중단", 연합뉴스, 10.2

동물권전문 변호사 "돼지 11만마리 예방적 살처분? 정말 필요한 범위까지만 해야", 머니투데이, 10.4